

# 성별로 본 중·고령층 연령별 취업분석

이 성 용  
(강남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통계청(2005)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1%에서, 2010년 10.9%, 2020년 15.7%, 2030년 24.1%, 2050년 37.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과정은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와 출산율 급감(특히 1970년대 이후)에 기인한다. 고령화로 인한 성·연령 인구구조의 변동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또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전체인구 중 노인들의 비율이 낮았던 시대에 생성되고 유지되었던 삶의 방식인 전통적 삶의 방식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많은 이론적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동과 같은 거시적 사회현상이 개인적 차원의 행위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Marshall, 1995).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서구사회에서 노인들의 노후보장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어 왔다. 전통적 사회, 특히 인구변천 이전 사회의 가족은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 결과 젊은 자녀에게 노인 부양은 커다란 짐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출산율이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진 고령화 시기에서 노인부양은 점차 젊은 자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인 세대마저 세대가 함께 사는 형태보다 개인주의적 삶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석·김익기, 2000). 이러한 개인주의적 삶은 노인들에게 자녀의 정서적 지원같은 비경제적 요소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낳았다. 주로 효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과거 고령화 연구(성규탁 2001)와는 달리, 최근의 고령화 연구는 가족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박경숙 2003a; 성지미·안주엽 2006, 성지미·이운정 2001). 사실 노인 의존 비율의 증가로 인한 연금이나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노인들은 연금과 자녀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노후대비를 한다. 이 연구는 노인 스스로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중·고령층의 취업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노인들이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자아 성취를 이룩하고자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취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최근 노후생활을 자식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보다 젊은 세대가 더 강한 반면 저소득층이 노후준비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동아일보 2007년 3월 30일)

## II. 기존 문헌 연구들의 고찰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지표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sup>2)</sup> 89.9%였지만, 2002년 70.7%, 2006년 63.4%로 감소하였다. 또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은 2002년 9.6%에서 2006년 7.8%로 감소한 반면, 정부·사회·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은 2002년 18.2%에서 2006년 26.4%로 증가하였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노인생활실태 조사(2005)에서 65세 이상 응답자들은 노후 생활비를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노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항목에 대해 40.2%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18.7%가 ‘가족, 자녀들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40.9%가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0.2%가 ‘기타’로 응답했다<sup>3)</sup>. 게다가 노부모의 노후부양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실태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노후부양주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항목인 “OO께서는 노후생활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응답자의 무려 84.2%가 ‘자신’이라고 응답했고, 자녀에는 12.8% 그리고 사회에는 2.9%에 불과하였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1999).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노인 부양의 일차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인식은 점점 감소하고 오히려 개인이 노후연금이나 정부의 노인복지를 통해 노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인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하기보다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녀와 별거하면서 독립된 개인주의적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의 개인주의적 삶은 건강하고 경제적 보장이 확신될 때 이루어지기 쉽다.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책임지는 노후생활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성지미·이윤정 2001).

노인의 개인주의적 삶을 위한 경제력은 연금이나 개인의 자산을 통해 획득할 수 있지만, 취업을 통해서도 이룩할 수 있다. 또 취업은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삶에도 활기를 넣어준다. 최근의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57.9%가 취업을 원했고, 그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취업희망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34.3%)’과 ‘일하는 즐거움(17.4%)’이었다.

중·고령층의 취업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지만, 취업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될수록 낮아진다(박경숙, 2006; 성지미·안주엽 2006; Fridman, Goodkind, Cuong and Anh 2001). 이를테면, 제 6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분석결과는 50세 이후 중·고령층 미취업률이 성별에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성지미·안주엽, 2006)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보다 낮다(Agree and Clark 1991; Clark and Anker, 1993). 그 이유의 하나는 취업이 성별에 따라 다른 의미를 주는 가족문화일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비서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바깥일 즉 경제적인 일은 남성의 일, 집안일은 여성의 일로 간주하여 남녀의 일이 구분되어 왔다. 따라서 남성에게 은퇴는 자신의 일생 특히 성년 시절을 나타낸 지배적인 역할에서 떠나

2) 1998년 조사는 ‘정부·사회·가족’이란 응답범주가 없는 반면, 2002년과 2006년에는 그 응답범주가 삽입되었다. 그 결과 1998년에 가족이란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3) 1998년 조사에서는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38.8%, ‘가족, 자녀들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32.5%,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5.5%, 그리고 ‘기타’와 ‘모르겠다’ 3.2%였다.

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성의 은퇴는 자신의 일차적 역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에 대한 책임과 함께 병행하여 떠맡았던 역할에서 떠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orenen 1983). 그 결과, 노후보장이 주로 비공식적으로, 즉 가족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서구국가에서는 노동시장을 떠나는 의사결정은 주로 건강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Fridman, Goodkind, Cuong and Anh 2001). 비서구 사회에서, 노후보장의 근원의 대부분은 가족과 일이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Bui et al. 2000). 가족이 주요 경제적 단위가 되는 사회에서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려 할 것이다. 또 남성과 여성에게 은퇴이전까지 유대를 이어왔던 연결망에도 다르게 변동을 이끌어 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었던 사회에서, 남성은 성인시절 가장 긴밀한 유대를 가져왔던 조직 혹은 연결망을 떠나는 것이지만 여성은 가족보다는 덜 중시하여 왔던 연결망을 떠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퇴 의사결정에는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노후보장이 가족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을수록 중·노년층 노동자들은 일찍 은퇴를 할 수 있다(Gruber and Wise 1998).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운 연금 및 사적 은퇴 프로그램의 덕택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노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미국 남성의 경우 1910년 74세, 1950년 70세, 1970년 70세, 1985년 62세(Cahill, Giandrea and Quinn 2006, 515쪽에서 재인용)—. 점점 더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참여율이 최근까지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Purcell 2005; Quinn 2002) 또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Toossi 2005). 1980년 후반을 분기점으로 1990년 이래 노인 남성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경력 직업을 떠나는가? (Cahill, Giandrea and Quinn 2006).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있어, 은퇴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이전에 단기간 혹은 부분 일자리를 한번 혹은 그 이상을 행하고 떠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일자리는 전시간 경력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완전 철수 사이에서 “징검다리 일자리(bridge jobs, Cahill, Giandrea and Quinn 2006)”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완만한 과정의 은퇴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은퇴한 중·노년층의 의사결정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또 은퇴를 했다고 했을지라도, 연금이 불안하거나 노후보장을 지원해주는 자녀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했던 중·노년층 사람들은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는 노부모를 모시던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칙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도 약화시켰다.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가족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정부의 복지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졌다. 그 결과 중·노년층 취업에 대한 개인적 행위와 태도는 외환위기 직후와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시기 사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남성과 여성의 미취업률은 50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는 60대 이후 상당히 감소한다<sup>4)</sup>(성지미·안주엽 2006). 연령이 높아질수록

4) 제6차 한국노동채널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미취업률이 50-54세 남자 12.1%, 여자 47.8%, 55-59세 남자 20.0%, 여자 59.8%, 60-64세 남자 41.7%, 여자 63.0%, 65-69세 남자 54.2%, 여자 74.0%, 70-74세 남자 70.7%, 여자 86.6%이다(성지미·안주엽, 2006: 47쪽 <표 1>).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 노동시장의 참여를 격려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60-65세 사이에서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보다 약간 높지만 65세 이상에 되면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Fridman, Goodkind, Cuong and Anh 2001).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Fridman, Goodkind, Cuong and Anh 2001). 그것은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더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문화에 따라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남녀의 일이 구분된 사회에서 가족 혹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없는 남성보다 더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것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서구의 경우도 여성은 어느 정도 가족의 재정적 보장이 되면 은퇴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 남편도 부인이 일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Szinovac and DeViney, 2000). 물론 그러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전통적 가족인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증가할 것이다(Erskine 1991; Mason and Lu 1988).

또한 여성의 노동력을 원하는 사회구조의 변환은 여성의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최근 수십 년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증가한 결과, 노인 남성의 노동참여율과 여성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급격하게 근접하고 있다(Gendell and Siegel 1992). 미국의 경우 1950년대 55-59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90%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30%로 그 차이가 무려 60%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그 차이가 20%미만으로 줄어들었다(Cotter, Hermsen and Vanneman 2002).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50대 이후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를 증가시켜 과거보다 남성과 여성 노인 사이의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연구는 젊은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그 결과 노인 여성과 남성 사이의 노동시장 참여율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더 드물다. 가족의 특성이 개인의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또한 드물다(Henkens 1999; Szinovac, DeViney and Davey 2001).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분석에서 성별을 단지 독립변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로 분리된 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특성이 중·고령층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남녀별로 분리하여 인구학적 그리고 가족 특성 변수들이 남성과 여성 중·고령층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다. 게다가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Cotter, Hermsen and Vanneman 2002), 외환위기 직후 취업이 급격히 감소한 시기와 그 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한 시기를 통제할 필요도 있다.

### III. 분석자료 구성

이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에서 제7차까지의 자료이다. 최초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5,000개 가구표본과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의 개인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고용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준고령자 이상에 해당하는 만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각 조사년도에서 만50세부터 만70세 사이의 중·고령자들이다. 각 조사년도에서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수는 1차 자료인 1998년 2906명, 1999년 2790명, 2000년 2682명, 2001년 2685명, 2002년 2781명, 2003년 2879명, 2004년 2948명으로, 총 19,667명의 응답자들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를테면 1998년 만 50세가 된 응답자는 1999년 51세, 2000년 52세 2001년 53세, 2002년 54세, 2003년 55세, 2004년 56세 응답자로 일곱 번 포함된다. 또 만 50세가 1998년에 된 응답자는 여섯 번, 2000년 다섯 번, 2001년 네 번, 2002년 세 번, 2003년 두 번, 2004년 한 번 포함된다. 반면 만 70세가 1998년에 된 응답자는 단 한번만 포함되지만, 1999년 두 번, 2000년 세 번, 2001년 네 번, 2002년 다섯 번, 2003년 여섯 번, 2004년 일곱 번이 포함된다. 이런 식의 자료 구성 방식은 불연속 사건사 분석(discrete event history analysis)를 위한 자료분석 방식과 거의 흡사하며, 일반적으로 다변량분석에서 표본오차를 약간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만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어긋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ison,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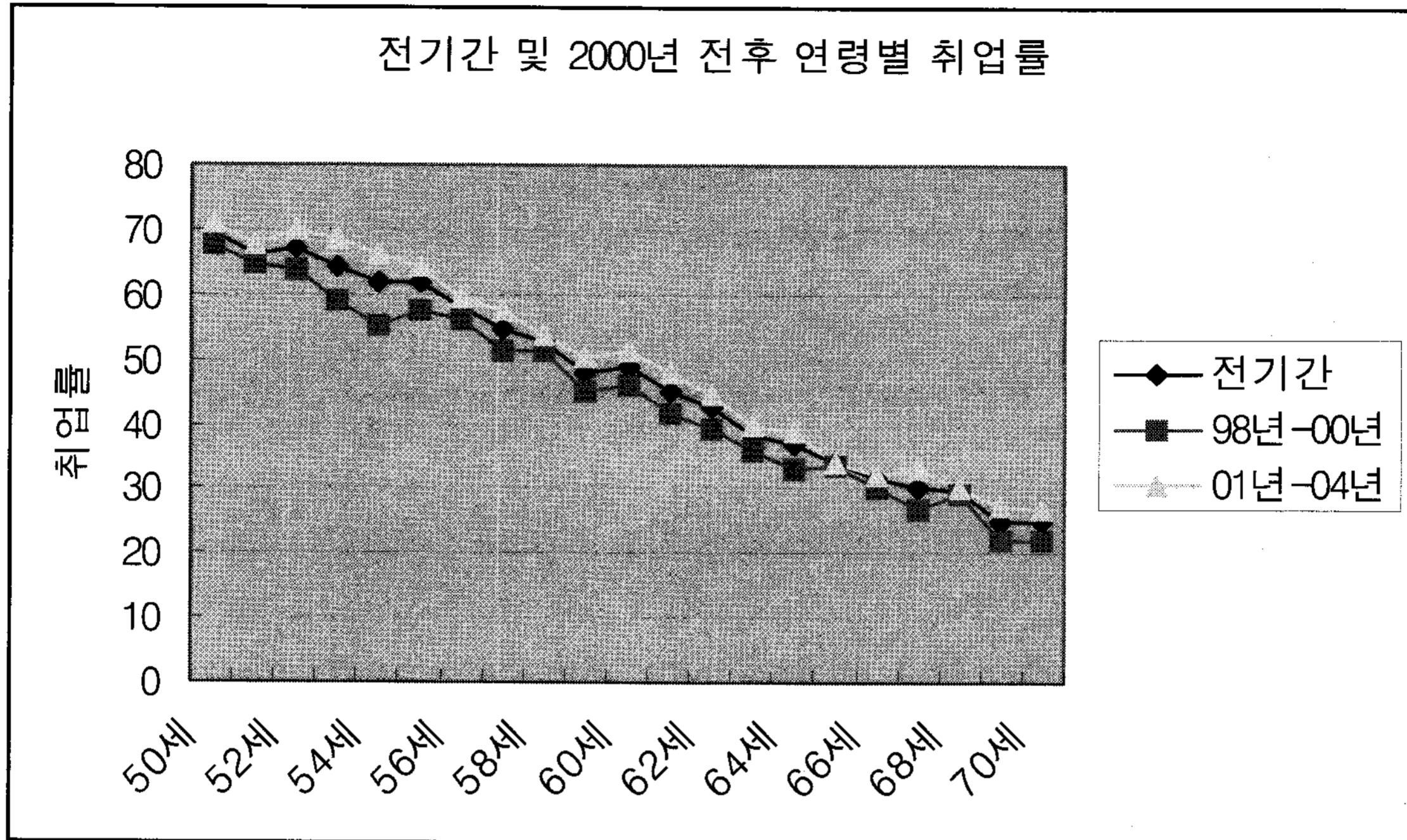
위의 방식으로 구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연령별 취업률 변화를 분석한 뒤, 성과 각 연령별로 다변량분석을 행하겠다.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요인이라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연령별로 분석하는 이유도,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독립변수들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고령층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과 연령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은 통계모형에서 단지 성과 연령을 통제하고 다른 독립변수들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IV. 연령별 취업률 변화

개인의 취업률은 성,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동과 사회적 차원의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층 노동자들이 비록 2000년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외환위기 직후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의 기관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기간에서 연령별 중·고령층 노동자의 취업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간에 따른 연령별 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기간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0년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2001년 이후를 비교할 때, 2001년 이후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기회복이란 사회구조적 변동이 외환위기 직후 갑자기 감소된 중·노년층의 노동 수요(혹은 기회)를 증가시켜 중·노년층의 취업률을 상승시킨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업률의 증가는 중·노년층 취업률의 양적인 증가를 나타낼 뿐, 질적인 향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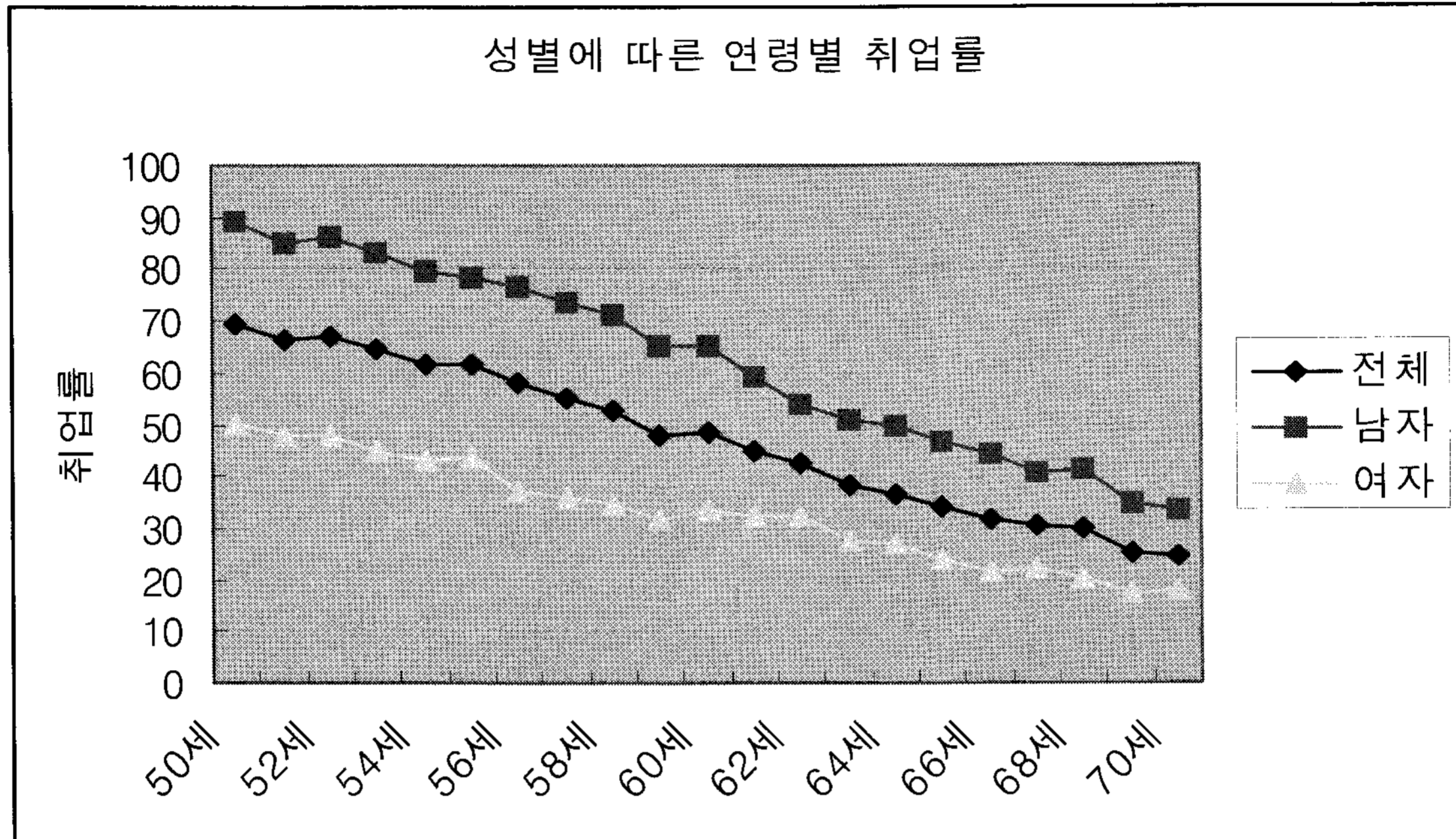
<그림 1> 전기간과 2000년 전후 기간의 연령별 취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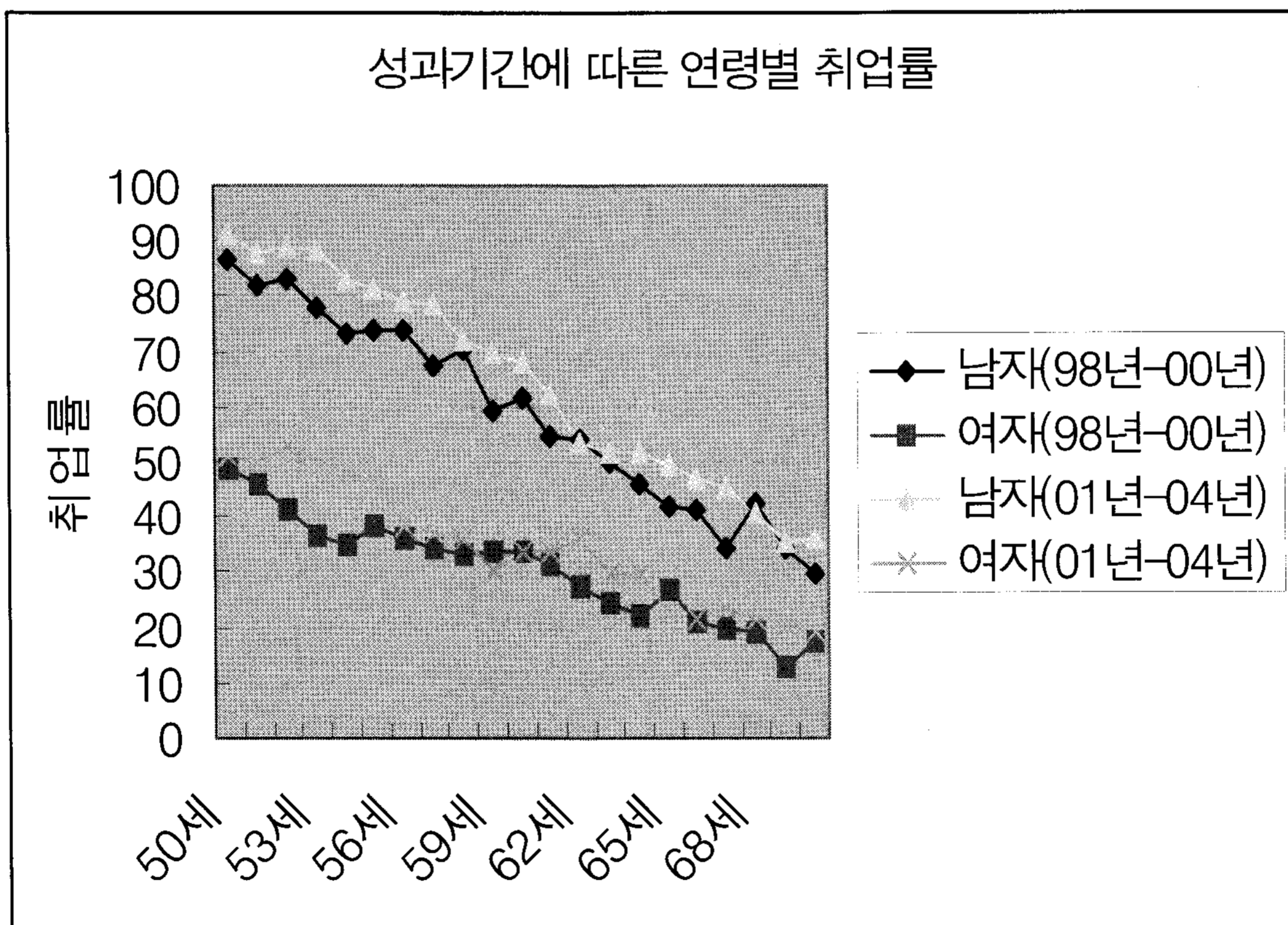
두 번째로 남성의 연령별 취업률과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에서 노인 남성의 취업률이 노인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은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에서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노인 세대일수록 남성은 바깥 일 즉 경제적인 일을 여성은 집안 일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 것이다. 그러한 가치관은 <그림 2>의 남성 노인 취업률과 여성 노인 취업률 차이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남녀 간의 취업률 차이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그러한 경향은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더 급격히 하락한 결과라 해석된다. 남성은 취업률이 50세 89.2%에서 70세 33.8%로 약 55.4%가 감소한 반면, 여성은 50세 50.2%에서 70세 18.2%로 약 32.0%가 감소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23.4%가 더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2000년 이전과 이후 남성과 여성 노인들의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연령별 취업률은 대체로 외환위기 직후 기간보다 경기 회복 기간에 더 높다. 한편 인구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1995년과 2000년 55세 이상 연령별 고령층 취업률을 분석한 박경숙(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000년도 연령별 취업률이 대체로 1995년도 연령별 취업률보다 낮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로 2000년도 연령별 취업률이 대체로 1995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 박경숙의 2000년 연령별 취업률 계산에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추락한 취업률 변화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박경숙이 분석한 2000년 연령별 취업률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환위기 직후 기간 1998-2000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 해당할 것이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연령별 취업률 변화



<그림 3> 성과 기간에 따른 연령별 취업률





## V. 분석 변수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종속변수로 사용될 취업 변수를 살펴보면, 1998년 자료에서는 2906명 중 47%가 취업해 있고 52.4%는 미취업 상태이다. 만50-70세의 중·고령층 취업 비율은 1998년 47.6%에서 1999년 44.52%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50.82%로 다시 증가하고 2001년 45.74%로 또 다시 감소하지만 2002년에 약 54.01%로 급상승하여 2003년과 2004년에는 그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이 자료의 중·고령층 취업 비율은 002년까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였지만, 2002년 이후에는 취업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자. 예를 들어, 1998년 자료 연령별 분포는 50세 7.7%(224명), 51세 7.57%(220명), 52세 6.02%(175명), 53세 5.02%(146명), 54세 5.06%(147명), 55세 4.88%(142명), 56세 6.12%(178명), 57세 4.85%(141명), 58세 5.36%(156명), 59세 6.09%(177명), 60세 5.49%(159명), 61세 4.71%(137명), 62세 5.02%(146명), 63세 3.95%(115명), 64세 3.47%(101명), 65세 3.27%(95명), 66세 4.33%(126명), 67세 3.33%(96명), 68세 2.65%(77명), 69세 2.99%(87명), 70세 2.17%(63명)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에 만 50세가 된 사람은 1948년생이며, 해방을 맞이한 1945년생은 53세이다. 따라서 1998년 만 53세가 된 인구수보다는 만50세부터 만52세가 된 인구수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표본에서 6.12%를 차지한 1942년생인 56세와 6.09%를 차지한 1939년생인 59세의 응답자는 약간 과다 표집된 것처럼 보인다.

1999년 자료에는 1949년생이, 2000년 자료 1950년생, 2001년 1951년생, 2002년 1952년생, 2003년 1953년생, 2004년 1954년생이 만 50세로 새로이 포함되었고, 만71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은 각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각 연령의 응답자 수는 조사연도가 지나면서 감소되었다. 이를테면 1998년 만 50세였던 224명의 응답자는 1999년 208명(51세), 2000년 186명(52세), 2001년 185명(53세), 2002년 175명(54세), 2003년 182명(55세), 2004년 179명(56세)로 감소되었다. 흥미롭게도, 패널손실이 3차 조사 연도까지 급격히 일어난 뒤 4차년도인 2001년 이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1998년 51세였던 응답자 220명도, 1999년 179명, 2000년 168명, 2001년 163명, 2002년 163명, 2003년 165명, 2004년 166명으로 감소되어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제7차 자료에서 만 70세가 된 노인의 경우도, 1998년 101명(64세), 1999년 95명(65세), 2000년 93명(66세), 2001년 89명(67세), 2002년 86명(68세), 2003년 83명, 2004년 81명(70세)로 감소하였다. 사망률을 감안하더라도, 조사연도가 지나면서 패널손실이 감소된 것처럼 보인다.

성별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1998년 자료는 남성이 약 49.1%, 여성이 약 50.9%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이후 자료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아져 약 52% 수준 그리고 남성은 약 4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유배우자는 혼인해서 현재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배우자의 범주에는 혼인을 안 한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 별거 혹은 이혼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유배우자 비율은 약 81%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1998년 50.58%에서 1999년 49.5%, 2000년 48.7%, 2001년 47.15%, 2002년 44.87%, 2003년 42.2%, 2004년 39.7%로 줄었다. 고졸은 1998년 20.8%에서 1999년 22.01%, 2000년 22.71%, 2001년 21.94%, 2002년 23.84%, 2003년 25.18%, 2004년 26.15%로 증가했고, 대재이상은 1998년 10.3%에서 1999년 9.64%, 2000년 9.25%까지 줄어들었다가 2001년 9.72%, 2002년 9.78%, 2003년 11.11% 2004년 11.84%로 상승하였다. 비록 대



<표 1a> 각 년도 변수들의 빈도표 (1)

	1998년자료(N=2906)		1999년자료(N=2790)		2000년자료(N=2682)	
취업						
취업	1385	47.60%	1242	44.52%	1363	50.82%
미취업	1523	52.40%	1550	55.48%	1319	49.18%
연령						
50세	224	7.70%	180	6.44%	184	6.86%
51세	220	7.57%	208	7.46%	160	5.97%
52세	175	6.02%	179	6.41%	186	6.94%
53세	146	5.02%	152	5.44%	168	6.26%
54세	147	5.06%	135	4.84%	133	4.96%
55세	142	4.88%	133	4.76%	125	4.66%
56세	178	6.12%	134	4.80%	121	4.51%
57세	141	4.85%	163	5.84%	123	4.59%
58세	156	5.36%	127	4.55%	156	5.82%
59세	177	6.09%	148	5.30%	118	4.40%
60세	159	5.49%	164	5.87%	142	5.29%
61세	137	4.71%	149	5.33%	152	5.67%
62세	146	5.02%	123	4.41%	135	5.03%
63세	115	3.95%	137	4.91%	118	4.40%
64세	101	3.47%	110	3.94%	123	4.59%
65세	95	3.27%	95	3.40%	104	3.88%
66세	126	4.33%	87	3.11%	93	3.47%
67세	96	3.30%	120	4.30%	84	3.13%
68세	77	2.65%	83	2.97%	107	3.99%
69세	87	2.99%	76	2.72%	80	2.98%
70세	63	2.17%	87	3.11%	70	2.61%
성별						
남	1428	49.10%	1339	47.99%	1284	47.87%
녀	1480	50.90%	1451	52.01%	1398	52.13%
결혼						
유배우자	2159	81.20%	2263	80.75%	2176	81.13%
무배우자	547	18.80%	537	19.25%	506	18.87%
교육수준						
초졸이하	1470	50.58%	1381	49.50%	1306	48.70%
중졸	521	17.90%	526	18.85%	519	19.35%
고졸	606	20.84%	614	22.01%	609	22.71%
대재이상	309	10.30%	269	9.64%	248	9.25%
거주지역						
도시	1627	55.95%	1541	55.23%	1487	55.44%
농촌	1281	44.05%	1249	44.77%	1195	44.56%
건강						
매우건강			420	15.05%	277	10.33%
건강한 편			899	32.22%	868	32.36%
보통	2906	100%	758	27.17%	860	32.07%
나쁜 편			570	20.43%	561	20.92%
매우 나쁨			143	5.13%	116	4.33%
기간						
2000년까지	2906	100%	2793	100%	2682	100%
2001년이후						

<표 1b> 각 년도 변수들의 빈도표 (2)

변수	2001년자료(N=2685)		2002년자료(N=2781)		2003년자료(N=2879)		2004년자료(N=2948)	
취업								
취업	1228	45.74%	1502	54.01%	1538	53.42%	1594	54.07%
미취업	1457	54.26%	1279	45.99%	1341	46.58%	1354	45.93%
연령								
50세	140	5.21%	214	7.70%	160	5.56%	190	6.45%
51세	183	6.82%	138	4.96%	225	7.82%	158	5.38%
52세	151	5.62%	173	6.22%	137	4.76%	223	7.56%
53세	185	6.89%	151	5.43%	175	6.08%	132	4.48%
54세	163	6.07%	175	6.29%	158	5.49%	180	6.11%
55세	134	4.99%	163	5.86%	182	6.32%	162	5.50%
56세	116	4.32%	132	4.75%	165	5.73%	179	6.07%
57세	117	4.36%	112	4.03%	131	4.55%	166	5.63%
58세	120	4.47%	110	3.96%	117	4.06%	135	4.58%
59세	150	5.59%	117	4.21%	113	3.92%	116	3.93%
60세	121	4.51%	150	5.39%	125	4.34%	111	3.77%
61세	137	5.10%	121	4.35%	147	5.11%	125	4.24%
62세	150	5.59%	133	4.78%	116	4.03%	141	4.78%
63세	136	5.07%	147	5.29%	139	4.83%	111	3.77%
64세	114	4.25%	134	4.82%	144	5.00%	136	4.61%
65세	115	4.28%	114	4.10%	132	4.58%	145	4.92%
66세	102	3.80%	123	4.42%	114	3.96%	126	4.27%
67세	89	3.31%	102	3.67%	126	4.38%	109	3.70%
68세	83	3.09%	86	3.09%	105	3.65%	121	4.10%
69세	100	3.72%	85	3.06%	83	2.88%	101	3.43%
70세	79	2.94%	101	3.63%	85	2.95%	81	2.75%
성별								
남	1290	48.04%	1325	47.64%	1359	47.20%	1403	47.59%
녀	1395	51.96%	1456	52.36%	1520	52.80%	1545	52.41%
결혼								
유배우자	2192	81.64%	2265	81.45%	2349	81.59%	2393	81.17%
무배우자	493	18.36%	516	18.55%	530	18.41%	555	18.83%
교육수준								
초졸이하	1266	47.15%	1247	44.87%	1215	42.20%	1171	39.72%
중졸	566	21.08%	598	21.50%	618	21.47%	656	22.25%
고졸	589	21.94%	663	23.84%	725	25.18%	771	26.15%
대재이상	261	9.72%	272	9.78%	320	11.11%	349	11.84%
거주지역								
도시	1463	54.49%	1510	54.30%	1561	54.20%	1580	53.60%
농촌	1222	45.51%	1271	45.70%	1318	45.78%	1368	46.40%
건강								
매우건강	32	1.19%			28	0.97%	32	1.09%
건강한 편	778	28.98%			875	30.39%	899	30.50%
보통	817	30.43%	2781	100.00%	1002	34.82%	1076	36.50%
나쁜 편	875	32.59%			805	27.96%	819	27.78%
매우 나쁨	183	6.82%			169	5.87%	122	4.14%
기간								
2000년까지								
2001년이후	2685	100%	2781	100%	2879	100%	2948	100%

재이상의 비율이 1999년과 2000년 자료에서 감소한 것은 이상한 현상이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주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사람들과 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1998년 자료에서는 도시에 응답자의 약 56%, 농촌에 44%가 농촌, 1999년 도시 55.2%, 농촌 44.8%, 2000년 도시 55.4% 농촌 44.6%, 2001년 도시 54.5% 농촌 45.5%, 2002년 도시 54.3% 농촌 45.7%, 2003년 도시 54.2% 농촌 45.8%, 2004년 도시 53.6% 농촌 46.4%가 거주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이 농촌보다 도시에 약간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1998년과 2002년 자료에서는 질문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조사의 응답자 건강상태 점수는 중간 점수인 3점을 임의로 부여하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자신의 건강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2000년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99년 15.05%, 2000년 10.33%에 달했지만, 2001년 1.19%, 2003년 0.97% 2004년 1.09%로 거의 1/10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999년 20.4%, 2000년 20.9%에서 2001년 32.6%, 2003년 28%, 2004년 27.8%로 증가되었다. 즉 건강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1년 이후에 갑자기 줄어들고 반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기간 변수는 조사연도가 2000년 이전 자료인지 혹은 2001년 이후 자료인지를 가리키는 변수이다.

## VI. 다변량 분석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다변량 분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성별에 따라 독립변수들이 중·고령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변수들이 연령에 따라 중·고령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 변화를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자료를 나누어서 독립변수들이 중·고령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 중고령층 연령별 남성취업률: 50-70세

연령	상수	유배우자	건강	고졸	대졸	도시	기간	총소득
50세	1.51	1.04***	-0.77***	-0.04	0.23	-0.18	-0.22	0.34**
51세	1.72*	1.24***	-0.79***	0.23	0.76*	-0.68***	-0.25	0.24*
52세	1.03	0.82**	-0.70***	-0.26	0.21	-0.66**	-0.38	0.43***
53세	3.21***	0.78**	-1.02***	0.27	-0.17	-0.55**	0.83**	0.10
54세	2.20***	1.07***	-0.77***	-0.35	-0.29	-0.23	0.58*	0.07
55세	1.86**	0.99***	-0.71***	-0.39	-0.01	-0.16	0.41	-0.1
56세	2.35***	0.47	-0.59***	-0.33	-0.21	-0.23	0.46	0.03
57세	3.05***	0.11	-0.59***	-0.07	0.07	-0.32	0.92***	-0.11
58세	4.00***	0.73**	-0.81***	-0.35	-0.25	-0.33	0.73***	-0.21*
59세	1.03	0.22	-0.35***	-0.27	-0.17	-0.48***	0.29	0.09
60세	2.00***	1.09***	-0.63***	-0.50***	-0.38	-0.45***	0.53	-0.05
61세	2.40***	0.55	-0.60***	-0.53***	-0.15	-0.46***	0.68**	-0.11
62세	1.07	-0.01	-0.37***	-0.46**	-0.31	-0.38**	-0.18	0.11
63세	2.95***	0.13	-0.61***	-0.54**	-0.25	-0.58***	0.48*	-0.15*
64세	1.81***	0.6	-0.66***	-0.12	-0.58***	-0.75***	0.34	-0.01
65세	-0.28	0.85*	-0.32***	-0.22	-0.57*	-0.48	0.12	0.1
66세	1.42*	0.77	-0.68***	-0.34	-0.42	-0.52***	0.27	0.01
67세	1.72**	0.33	-0.57***	-0.51**	-0.35	-0.67***	0.67***	-0.08
68세	0.62	0.49	-0.55***	0.08	-0.36	-0.96***	-0.27	0.15
69세	1.19	-0.42	-0.23	-0.05	-0.08	-1.19***	-0.01	-0.02
70세	-1.07	0.61	-0.37	-0.03	-0.67	-1.06***	0.09	0.24**

1. 남성

남성의 연령별 로짓분석 결과는 <표2>에 나타나 있다. 먼저 상수를 살펴보면, 21개의 모형 가운데 8개의 모형(50세, 52세, 59세, 62세, 65세, 68-70세)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p=0.1). 21개의 모형 중 8개의 모형이 취업률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배우자는 21개 연령 가운데 9개의 연령(50-55세, 58세, 60세, 65세)에서 중·고령층 남성 노동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중·고령층 노동자들은 특히 55세 이전에 배우자 없는 남성 중·고령층 노동자들보다 취업해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동자들이 없는 배우자들보다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보다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아 더 건강하다(예, 이성용 2005)는 사실이다. 그러나 56세 이후 연령에서는 배우자의 유무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건강변수는 69세와 70세 연령을 제외한 19개의 연령에서 중·고령층 남성 노동자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연령에 걸쳐 건강이 나쁘면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 건강은 남성 중·고령층 취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수준 분석에서 취업률과 교육수준 사이의 관계는 중·고령층 남성에서 정적 관계를, 그리고 고령층 남성에서는 부적 관계를 보인다. 51세 남성은 대재이상 남성이 중졸이하의 남성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60세 이상에서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교육수준 남성이 낮은 교육수준의 남성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60세부터 63세 사이 그리고 67세에서 고졸학력이 중졸이하의 남성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였고, 또 64-65세에서 대재이상 남성이 중졸이하 남성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교육수준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노후준비를 잘하여 좀 더 이른 나이에 은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시 중·고령층 남성이 농촌 중·고령층 남성보다 대부분의 연령에서 낮은 취업률을 보인다. 특히 괄목할 만한 발견은 50대 전반에서는 51-53세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59세 이상에서는 6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농촌 고령층 남성이 도시 고령층 남성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이는 농촌 남성이 도시 남성보다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간별 비교를 할 때, 2001년 이후가 2000년 이전보다 중·고령층 남성 취업률이 높아졌다(53세, 54세, 57세, 58세, 61세, 63세, 67세). 이는 2001년 이후 높아진 중·고령층 남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총소득은 중·고령층 남성 취업에 연령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간 연령층의 중·고령층 남성(특히 58세와 63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준고령층(50-52세)와 가장 높은 연령층인 70세 남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중고령층 연령별 여성 취업률: 50-70세

연령	상수	유배우자	건강	고졸	대졸	도시	기간	총소득
50세	0.84	-0.80***	-0.13	-0.42**	-0.46	-0.1	-0.09	0.07
51세	2.92***	-0.71***	-0.41***	-0.27	-0.53	-0.03	0.84***	-0.23***
52세	2.04***	-0.34	-0.38***	0.06	-0.68***	-0.04	1.02***	-0.20**
53세	1.47**	-0.73***	-0.34***	-0.27	-0.71*	0.13	0.93***	-0.09
54세	1.21**	-0.88***	-0.30***	-0.53	0.06	-0.18	0.58*	0.01
55세	1.05	-0.66***	-0.22*	-0.27	0.62	-0.38***	0.42	-0.02
56세	1.89***	-0.39***	-0.36***	-0.28	-0.77	-0.38**	0.63**	-0.16
57세	1.38**	-0.42**	-0.34***	-0.18	-0.48	-0.21	0.45	-0.11
58세	3.63***	-0.79***	-0.73***	-0.59**	0.16	-0.66***	0.90***	-0.23***
59세	3.09***	-0.53**	-0.43***	-0.46	-0.28	-0.16	0.88***	-0.40***
60세	1.94***	-0.69***	-0.22**	-0.66**	0.19	-0.41**	0.52**	-0.23***
61세	1.71***	-0.3	-0.40***	-0.5	-1.09	-0.48***	0.58**	-0.16**
62세	1.24**	-0.46**	-0.34***	-0.95***	-1.82*	-0.11	0.80***	-0.14
63세	1.59***	-0.11	-0.52***	-1.32	-1.31	-0.26	0.79***	-0.17***
64세	1.94***	-0.31	0.57***	-1.59	-1.62	-0.42**	0.97***	-0.19***
65세	0.930	-0.28	-0.43***	-2.61**	-14.7	-0.38*	-0.09	-0.02
66세	0.35	0.15	-0.30**	-1.73*	-13.5	-0.35	0.44	-0.13
67세	0.21	-0.25	0.18	-0.6	-1.13	-0.36	0.52*	-0.14
68세	0.99	-0.01	-0.34**	-0.64	-13.3	-0.15	0.64**	-0.24***
69세	-0.53	0.21	-0.04	-0.25	-13.5	-0.99***	0.72**	-0.16
70세	0.39	-0.01	-0.19	-0.35	-13.3	-0.91***	0.49	-0.19**

## 2. 여성

여성의 연령별 로짓 분석 결과는 <표2>에 나타나 있다. 상수를 살펴보면, 21개의 모형 가운데 13개 모형(51-54세, 56-64세)에서 유의미했고, 남성과 비교할 때 집중된 연령층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는 21개 연령 가운데 10개의 연령(50-51세, 53-60세)에서 중·고령층 여성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성과는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중·고령층 여성은 특히 60세 이전에 배우자 없는 중·고령층 여성보다 취업해 일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령이 지나가면 배우자의 유무가 취업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과 달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은 남성이 바깥일 여성이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는 전통적 생활양식이 우리의 중·고령층 특히 여성에게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건강변수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중·고령층 여성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 취업과 건강 사이의 관계는 결혼의 보호막 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은 중·고령층 취업에 부적인 영향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중·고령층 연령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 고졸의 중·고령층 여성은 50세, 58세, 60세, 62세, 65세, 66세에서, 대재 이상의 중·고령층 여성은 52세, 62세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인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도시 거주 중·고령층 여성은 농촌 거주 중·고령층 여성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21개 연령 가운데 9개의 연령층(55세, 56세, 58세, 60세, 61세, 64세, 65세, 69세, 70세)에서 농촌 거주 여성이 도시 거주 여성보다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였다.

기간별 비교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 취업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연령층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남성은 21개 연령 중 7개 연령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은 무려 15개 연령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01년 이후에 중·고령층 남성보다 중·고령층 여성이 더 높은 취업률 증가를 보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총소득은 취업에 부적 그리고 정적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지만, 여성의 경우 일괄적으로 부적인 영향만을 보인다. 더불어 그러한 총소득과 취업 사이의 부정적 관계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연령에서 나타났다. 21개 연령 중 10개 연령에서 유의미한 부정적 관계를 보여준다.

## VII. 마치는 글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고령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미약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노인들의 부양을 일차적으로 책임져 왔으나, 그러한 전통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노후보장은 점차 개인이 점점 책임져야 한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가족을 제외한 상황에서 개인의 노후보장은 정부나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국민연금이 있지만, 그 연금 액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그 부족한 금액을 메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층 사람들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독립변수들이 성 그리고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성과 연령별로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아

갈수록 취업률이 감소하며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 차이가 감소된다. 그 차이가 감소되는 이유는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의 취업률보다 연령이 높아갈수록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 2001년 이후에 중·고령층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은 전 연령에 걸쳐 상승하였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가정했던 대로 중·고령층 사람들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었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성별 그리고 연령별에 따라 변화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유배우자이다. 서구와 달리,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성장하고 성인 시절을 보냈던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남성과 여성의 경우, 남성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으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유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남편이 없는 무배우자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배우자의 유무는 중·노년층 취업에서 남성과 여성에 있어 정반대의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유배우자의 유의미한 효과는 60세가 넘어가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건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노년층 취업에 있어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전 연령에 걸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고령화시대에 있어 중·노년층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부가 중·노년층 건강을 유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교육수준은 유배우자 변수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가부장적 특성이 중·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 높은 학력의 소지자가 낮은 학력의 소지자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높은 학력의 소지자가 낮은 학력의 소지자 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인다. 이것은 높은 학력의 여성은 배우자 역시 높은 교육수준(혹은 사회적 지위)을 가질 수 있어 낮은 학력의 여성보다 취업을 통한 재정적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총소득에서도 나타난다. 가구의 총소득은 남성의 취업에는 연령에 따라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은 모든 연령에서 부적인 영향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농촌의 중·노년층 사람들이 도시의 중·노년층 사람들 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농촌 노인들의 취업이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이철희 1999).

우리 사회는 약 11년이 있으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가 차지하는 고령사회, 18년이 지나면 65세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초저출산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진입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노년층 취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의 급격히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말마암아, 세대간 그리고 남녀간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노후준비를 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중·노년층 취업은 이 연구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성별 그리고 보다 좁은 간격의 코호트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